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수재민에게 사랑과 구호의 손길을

전교인 의연금 모금 운동 전개

지난 주간 급작스럽게 내린 폭우는 인명과 재산을 빼앗았으며, 나라 전체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 넣더니, 이제는 언제 그런 엄청난 비를 뿌렸느냐는 듯이 고요하기만하다. 비는 그쳤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는 섬사리 아물 것 같지 않다. 이번 홍수로 이곳 저곳에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늘어나자,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이미 교구별로 연락을 취하여 수재민들에게 보낼 의류를 수집하여 전달하고, 의료전도부를 수해 현장으로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청년 1부와 2부의 주관으로 본당 입구에서 수재 의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데, 성도들의 많은 참여

를 바란다. 나라가 어려움에 치할 때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과 물질로 봉사했던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이번에도, 수해로 슬픔을 당한 수재민들은 위로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물질적인 헌신으로 구호의 손길을 펴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



민심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친애하는 K 집사님,
37년의 연륜을 쌓아온 자랑스런 충현의 가족으로서, 집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집사님은 대를 이은 충현의 아들이며 주일학교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러 직분을 맡을 때까지 충현을 떠나 본 적이 없고 충현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함께 한 분으로서 그 같은 자랑스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웅장한 예배당을 지을 때 휴가를 반납하고 두 달분의 생활비를 건축헌금으로 바치셨다는 눈물겨운 말씀도 후대에 큰 귀감이 되는 간증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같은 귀한 재목들이 버티고 있었기에 오늘의 충현이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엔 집사님 같은 오랜 제자도 있어야 하지만, 새 제자들도 증가되어야 합니다. 오랜 제자들은 새 제자들의 사표가 되어야지 길바닥처럼 반들반들해져서도 아니되고, 교회 안의 가시가 되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오랜 제자의 탈선 행위 때문에 연약한 새싹들이 머리를 들지 못한 채 시드는 일도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관복도 덧새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름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현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범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16
이 중 윤 목사

지난 찬양예배시 장학금 수여식 가져

우리 교회는 지난 9월 9일 저녁 7시 찬양 예배 시간에 장학회 주관으로 90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천국 일꾼 양성"을 교회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는 장학회를 구성하여 1971년부터 장학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금년에는 장학생 선발 기준을 세분화 하여 복음 전파에 보다 유익이 되도록 국내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나님 나

라 확장에 헌신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장학 증서를 전달받은 학생은 일반 대학생 23명, 고등학생 12명, 중학생 4명, 강남구청 추천 장학생 10명 등 모두 49명이다.

그 외에도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장학회가 합동신학원과 총회 신학대학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윗튼 대학원에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준교

선교사 자녀 2명, 이재서 전도사, 유국남 목사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성도들에게 보고하였다.

고3학생 위한 특별기도회 열어

대학입학학력고사를 100일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지난 9월 9일 갈릴리움에서 고등부 주관으로 열렸다.

예배 순서와 함께 가진 이번 기도회에는 조선근 장로와 김광신 장로가 장로, 학부모 대표로 기도했고, 이어서 교사대표, 고3·재학생 대표의 기도가 이어졌다.

학부모 12명을 포함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는 공부에 지친 고3 학생들에게 믿음의 힘과 지혜를 북돋아주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21일에 민경배 교수 초청 강연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

여전도회 협의회는 오는 9월 21일 오전 10시30분에 본당에서 연세대 신학대학 교수인 민경배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의 여성과 교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우리 나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자 성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한국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특강에 여전도회 회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오늘 장애인을 위한 자선 바자회 설명회 열려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인 제3차 장애인을 위한 자선바자회가 오는 10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됨에 따라, 그 준비를 위한 설명회 및 교구 연합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열린다.

이 시간에는 교구별로 운영할 상점과 식당에서 취급될 농수산물과 식당 메뉴를 추천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각 교구의 교역자를 비롯하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등 모든 교구 일꾼과 남녀 전도회 임원들의 참석을 바란다.

- 고문 : 김창인 원로목사
- 대회장 : 이중윤 위임목사
- 부대회장 : 각 위원회 위원장, 각 교구 목사
- 집행위원장 : 노광현 장로
- 운영위원장 : 각 교구장 장로, 여교역자, 남녀전도회 협의회장, 권사회 회장단, 스테반회 회장단

부서명	부	장	위	원	부서명	부	장	위	원
집행부	노	광	현	박	상	준	김	태	영
				정	경	자	허	명	호
재정부	윤	광	일	이	명	자(오)	오	인	근
				이	인	숙	채	수	경
				김	순	회	정	오	남
							김	양	자
홍보부	박	승	준	정	정	주	김	신	신
				이	승	철	김	인	규
				박	은	경	유	성	남
				안	철	우	이	용	호

초등 6부 "안드레운동"전개

초등6부는 9월 1일부터 "안드레운동"이라는 특별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건에 근거를 둔 것이다. 즉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내가 가까운 형제, 친구들을 적극 권유하여 교회로 인도함으로써, 오늘의 안드레가 되자는 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초

등6부는 9월 1일부터 "안드레운동"이라는 특별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가 되어보자는 이 운동은 교회 교육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드레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나에게도 한 영혼을 주소서"라는 기치 아래, 회원과 교사들이 한 명씩의 태신자를 품어 그들을 위해 매일 밤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전도에 관한 특별 교육도 실시한다. 또 교회 주변의 집중 전도를 위하여 학교별로 기도회를 소집하고, 소그룹 전도대회도 편성하며, 10월 28일에는 태신자를 초청하여 사랑의 떡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의료전도부 정기 월례회 가져

의료전도부는 지난 9월 9일 오후 1시에 선교관 204호에서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7월에 임종번 성도(제4교구)가 치과 기

것을 중단하고, 응급 환자 진료와 의료 상담에 치중하고, 주말의 무의촌 진료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미령 보츠나와 선교사가 현지에서 개원한 유치원에 유아복과 가방을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성경 강해

이 종 윤 목사

다른 양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요10:19~21)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자세히 보면, ‘다른 양’이란 단어와 ‘한 무리’ 그리고 ‘한 목자’라는 낱말이 눈에 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다른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문장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 ‘다른 양’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양 가운데에 있는 유대인 양이 아닌 이방인 양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한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를 믿는 무리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그리스도교의 무리 안으로 끌어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실례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하여 유대교에서는 축출을 당하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사실은 한 무리가 안으로 물려오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들도 모두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무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에 측은한 심정, 전도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시다. 유대인이나 헬라파 사람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양들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빨리 불러서 그리스도의 안에 넣어야 하는 사명을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그 양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매를 맞으셨으며, 굶주리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오해를 받으셨고, 술한 천대를 받으셨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양’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미 그리스도의 양이지만 유대 땅이 아닌 곳, 마게도냐나 로마, 서판아 등지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전도를하다가 쫓겨납니다. 심한 박해를 받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행 18:9,10)

바울은 아직 전도를 시작도 않았습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내 백성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빨리 무리 안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 다른 양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양을 도적질하려고 지금도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그들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주님의 양

예수를 한 목자장으로

섬기며 따르는 삶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일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시어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양들을 우리가 찾아내어 그리스도의 무리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것은 주님께서 다른 양들을 데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무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2. 한 무리

16절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한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양들이 한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무리와 한 무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혼동의 정도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들은 한 무리가 한 무리에 들어온다 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와 우리를 구별하지 못한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형제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조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교의 틀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든가, 감리교의 틀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에 교파간에도 화목이 옵니다. 옆에 있는 교회를 존중해주고 그 교회로부터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른 것과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리를 끊어 버리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요, 나아가 주님의 양도 아닙니다.

3. 한 목자

마지막으로, “한 무리가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목자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목자가 한 분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 연합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게 되면 양이 되어서 한 무리를 이루고 연합하여 한 목자 앞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 부름의 소리를 듣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곧 주님의 양이고, 그 양들이 주님을 한 목자장으로 섬기며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양이 되어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에까지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로 지탱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한 무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좀더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을 인정하는 교회는 우리가 다 교회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성경 해석이 우리와 좀 다르거나 신앙의 질과 태도가 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통해서 다루게 하고, 성도들은 그냥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말하는, 성경을 집합적으로 제일 간략하게 한 것

■ 지원교회 탐방기

시간보다
더 귀한
희생마리아전도회
제14지회

금년 8월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예수님의 피 값으로 택하여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 마리아전도회 제14지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는 전라북도 정읍군 삼평리에 자리잡고 있는 삼평교회이다. 우리가 이 삼평교회를 찾은 것은 8월 16일이었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적은 금액으로밖에 돕지 못한다는 것에 송구한 마음이 들어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회원들 가운데 8명이 뜻을 모아 삼평교회를 찾게 된 것이었다.

이동원 전도사님이 사무하시는 삼평교회는 17명의 여자 성도들이 제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일 낮 예배에는 약 25명이, 새벽 기도회에는 약 7명 정도가 출석을 한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25명 가량의 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

우리 일행이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는 4명의 집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삼평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들은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은 예배당에서 이동원 전도사님의 인도로 도착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친 후, 정성으로 준비해간 타월과 가방, 공책, 의류를 선물로 드리고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선물을 받으신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은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우리 삼평교회도 하루 속히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벗어나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다. 아직까지는 새벽기도회에 적은 수가 모이고 있는데, 10명 이상이 이 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11월에 개최할 부부동반 특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끝나 남자들도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셨다. 또한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의 손길에 대단한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특별지원을 해주신 마리아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공산권에 성경을 보냅니다

금년 성탄선물로 한 권에 3천원

최근 한국 교회는 교단을 초월하여 공산권 국가에 살고 있었던 동구라파의 교회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로 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연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를 비롯하여 박선희 목사(소망교회), 김선도 목사(광림감리교회), 정진경 목사(신촌성결교회)를 공동 의장으로 하고 전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책 한 권씩을 금년 성탄절 선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는 소련,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구권에서 3천만 권을,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원주민들로부터 4만 권의 성경을 보내줄 것을 요청받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과 북한에도 성경

책 보내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당 교회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전으로 시작한 것으로서, 우리 총현교회가 주관하여 금년 11월에 개최하는 동구권 목회자 세미나 프로그램과 더불어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성경 한 권에 우리나라 돈으로 3천 원(4불)으로 책정한 이번 운동은 단순한 한 권의 성경 보내기나 돈의 액수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임을 나타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건으

로 해석이 되어 한국의 일천만 기독교인들의 빠짐없는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오는 10월 22일(월) 오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갖고 중간 보고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우리 교회는 동구권과 아시아권의 공산국가에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 위한 운동을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이영세 장로) 주관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다음 주(9월 23일)주간 총현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온 교회가 먼저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운동본부 의장인 이종윤*목사는 당부하고 있다.

장애인 위해 헌신 각오한
양승희 권사

우리 교회 내에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여 주위 사람들을 호모하게 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8교구의 양승희 권사.

양 권사는 지난 13일,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사랑의 집"이라는 도자기 판매 전시장을 차리고, 조출한 개업 예배를 드렸다. 양 권사는 이 자리를 빌어 이 전시장을 열게 된 것은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중인 사랑의 집 건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밝혔다.

양 권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교회에서 해마다 열렸던 장애인 돕기 자선 바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도울 계획이라 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도를 실천하는 양 권사의 이런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충현지 출판국에서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충현 가족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꿈꾸었던 봄과, 그것들을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여름을 지나면서 채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면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 모집부문: 시, 수필
- 원고매수: 2백자 원고지 6~7매
- 제출처: 선교관 407호

세기등

내 속에 있는
것들

김창수 목사

나는 내 속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거울로 가끔 내 얼굴을 보지만 내 속은 교과서의 그림을 보고 추측할 뿐 아마 평생 못볼 것이다.

그런데 내 속이 가끔 궁금하다. 백과사전에는 척추를 시추하려고 수 킬로를 파내려간 땅 속에 관한 자료는 나와 있어도, 한 길도 안되는 사람 속에 대하여는 별무신통이다. 더구나 사람 속의 오장육부에 대해서는 말해도 정작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답답할 정도로 침묵이다.

나는 성경을 알면서부터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 그리 고매한 인격도 내 속엔 들어

있지 않다. 많이 배운 학식도 내 속엔 없다. 바울은 히브리인의 규례와 지식에 정통한 후에도, 주를 위해 그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지만, 내 앞에는 그럴 만한 지성도 별로 없다.

오히려 내 속에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것들로 꽂혀 있다. 우매하고 성급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추한 것들 밖에는,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괜찮은 것이란 보이지 않는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변변찮아서 얼마나 주님은 실망하셨을까? 얼마나 주의 영광이 가려우는가? 내 속에 사도 바울의 능력이 천분의 일만이라도 있고, 베드로의 담대함이 백분의 일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주의 일이 흥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내 심비에 울려온다. '내가 네 속에 있느니라'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말구름보다 더 추한 내 속에 주님이 거거하신다. 나는 이 음성을 자꾸만 되뇌어본다. 내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내 자신이 실망스럽게 보일 때마다, 내가 무능하여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할 때마다 나는 전에 내 속에 없던 무엇이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해본다.

나에게 세상 배경이 별로 없어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내 속에 있는 주의 이름을 베드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 나는 오늘의 영적, 육체적 장애인들에게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 주의 이름으로 걸게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세상 지식이 변변찮아도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한가? 부족하나마 나에게 말씀을 기업으로 주신 그분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대학생 때에 한 신앙 선배의 지도로 성경 암송에 많은 시간을 썼다. 내가 전공했던 일반 공부보다 성경에 더 심취하고 감명 깊은 구절들을 암송하였다.

그 성경 암송은 나를 일반 대학 졸업 후 선학교로 옮겨 놓았다. 내 속에 기억된 말씀이 있었기에 그것이 생소한 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했고, 신학 수업의 어려움을 뚫고 오늘까지 연약한 나를 든든히 지탱케 하고 있다.

이제 모든 실망을 거두고 우리 속에 있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육체에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충현의 세기등은 무궁한 든든하리라.

다음호 세기등은 김은태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 초등부 글짓기 대회 우수작

전도

정연 (4부)

교회에서 배울 때는 전도가 아주 어렵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멀어서 전도를 할 생각도 안 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전도사님께서 책받침을 나누어주셨다. 나는 그 책받침을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내 친구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우와, 이게 네가 다니는 교회니? 참 좋다.”

아이들이 그러자 나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우리 교회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이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교회가 너무 멀다고 했다. 나는 “가까운 교회라도 다녀봐.” 하고 말했다.

그 친구들은 지금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닌다.

나는 전도란 꼭 내가 다니는 교회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구원의 기쁨을 가진 어린이 박명자 (6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어린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선택받은 어린이로, 지난 3일간 잠을 못자서 예배시간에 눈충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고, 피곤해서 힘들었지만, 내 마음은 흡족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기쁨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기도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구원이 정말 있는 것인지도 마처럼 의심을 했고, 저물어 가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어린이였다. 그러나 김창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이다. 마음의 문과 귀의 문이 열려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적힌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어린이로 나는 변하였다.

청년1부

울동곡 대회 가져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울동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울동곡 경연 대회가 지난 9월 9일 청년 1부에서 열렸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찬양에서 탈피하여, 온몸으로 울동하며 찬송을 드려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 수화로 찬양을 드리는 조도 있어서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다.

핸드벨 단원 모집

- 일 시 : 9월 23일 오후 2시
- 장 소 : 본당 3층 제3다락방
- 대 상 : 피아노 체르니 30번 이상을 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
- 시험내용 :
 1. 찬송가 9장, 주기도문송가 창
 2. 다른 찬송가 초견 읽기
 3. 종치는 자세

군에도 초대 교회의 부흥 일어나길

어수덕 권사

8월 9일과 10일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 포병대대 시온교회를 위문하였다.

8월 9일 새벽 5시, 가족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6시 30분에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출발 기도회 힘입어 사기충천한 마음으로 헌지로 향했다.

도시의 분주함을 벗어나 양평, 홍천, 신남고개를 지나 남면터미널에서 여러 장병들의 따뜻한 영접과 서로 소개의 인사를 나눈 후, 장병들의 차를 선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전방으로 향했다. 대대장 이하 여러 장병들의 환영을 받으며 도착한 것은 11시 30분경. 서로의 인사와 사랑의 교제, 위문품 전달과 기념촬영 후, 선전당으로 안내되었다. 이어 내부반 견학과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는 대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오후 4시 교회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병들의 준비 찬송으로 분위기는 성령 충만함과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대상 상단에는 총현교회 위문예배, 벽면에는 예배순서를 아름답게 도안하여 붙인 그 정성어린 준비에 우리는 송구스러웠다.

신종렬 군중님의 사회와 김정순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군병들의 삶이란 은혜의 말씀과 군장병 성가대 찬양, 장병들의 특송, 우리 대원들의 특송으로 예배 분위기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즐거움 그대로였다. 이렇게 순박하고 들판한 장병들이 신앙 생활에 힘쓰고 특히 기도회 힘쓰는 것을 본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곳 시온교회는 1980년 9월 27일 헌당예배를 드렸고, 현 담임목사도 원당교회의 차양근 목사님이 시무하시며 군목으로 이종한 목사님이, 주임부에는 신종렬 군중님이 수고하고 계신다. 대대장님을 중심으로 군인 가족 6~7명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장병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신병들의 인격지도교육과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위한 금식기도 중에 있는 뜨거운 분위기의 교회이다.

예배 후, 성가대원들과 우리는 짝지어 둘러 앉아 울동과 복음송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미하는 시간도 시간이었다.

이튿날 아침 6시 새벽 기도회는 김정순 전도사님의 ‘제림의 날을 대배하여, 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은혜의 말씀이 조금은 해이해졌던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우리는 부대와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며 출발하였다. 돌아오는 길은 방향을 바꾸어 평화의 댐을 거치기로 하여 그곳을 향해 달렸다. 댐에 도착한 우리는 웅장함에 놀랐고, 한편 실망도 금치 못했다. 경제성도 전혀 없는 다만 망위용 댐에 그친다는 설명을 들을 때는 쓸쓸하기까지 했다.

군장병들이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고, 이 댐을 대하는 순간, 우리의 위문이 얼마나 미미하고 번거로운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장병들이 조국을 지키기에 나라가 건재하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린다고 여길 때 작은 힘이 나마 위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복음화된 조국통일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되는 절박한 상태임을 실감했다. 우리는 공수해온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장병들과 헤어져 화천으로 향했다.

길이 1986미터나 되는 해산터널을 지나 높고 낮은 139개의 봉우리를 굽이굽이 돌아 오를 때 스쳐가는 창 밖의 그 절경은 마치 한폭의 동양화 같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에 찬미의 찬송이 저절로 차내에 울려 퍼졌다.

이 위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간 순간 배부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어떤 경우에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부족한 곳을 찾아 쓰임 받고 도움이 되며, 나눠주어야 할 사랑의 부피와 직분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많은 성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 선교에 힘써 장병들이 전 후방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 복음이 크게 전파되고 확산되어 하나님 사업이 부흥되기를 기도드린다.

하나님께서 1679부대 시온교회와 대대장 이하 모든 장병들을 도우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회 힘쓰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 성령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모든 과분한 대접을 받게 하시고, 자연과도 교감케 하신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께 다시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너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언제라도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길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설 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서고금, 인종,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 없이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질 문

1. “하늘에 계신”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전 5:2)?
2.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롬 8:16)?
3.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까(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8 과 주기도문

본문 : 마 6:9

요절 :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사 63:16)

찬송 : 433, 439

제 99 문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도의 지침으로써,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니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제 100 문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서문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